

청소년들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정 장 현¹⁾

조 한 익²⁾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9년간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과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논문은 석사학위논문 157편, 박사학위논문 12편, 학술논문 124편으로 총 293편이다. 자료의 코딩방법은 Lipy와 Wilson(2001), Cooper(2010)의 메타분석방법과 코딩절차에 따라 논문관련사항, 논문형태, 학교급별, 개별적응 유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효과크기는 상관자료를 Fisher의 Z계수로 바꾸어 계산하였으며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상관분석으로 변환하여 해석하였다. 전체효과크기와 조절변인들에 따른 효과크기는 학교급별로 다를 것으로 보고 무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의 효과크기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은 낮은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의 효과크기는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효과크기는 학교급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의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또래애착, 적응관련 변인들, 메타분석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2) 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 h1652@gnu.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감각스러운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고 주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또래와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자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또래들과 애착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 삶의 목표와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응원하는 지지가 필요한데 이는 또래애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영화, 임정하, 2011). Armsden과 Greenberg(1987)도 또래 간에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또래애착이라고 보고 있다. 또래애착을 통해 청소년들은 또래들이 자신과 유사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고민과 갈등, 긴장감을 해소한다(천수혜, 2007). 이처럼 청소년기 동안 또래애착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징들을 고루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의 범위를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강봉규, 2016; 최경숙, 송하나, 2010).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서적 성숙과 함께 부모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 하며, 또래애착을 통해서 안정감과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조현영, 2010). 또래애착은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서로 신뢰하며 교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 옥정(1998)의 분류에 따라 또래애착을 의사소통, 신뢰감, 비소외감의 세 가지 하위 요인만을 연구하는 정적또래애착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래애착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또래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신뢰감은 청소년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또래의 반응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형성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비소외감은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고립이나 또래를 향한 분노를 얼마나 낮추는가를 의미한다(김승진, 2015). 하지만 또래애착은 정적또래애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래애착에서는 정적또래애착과 더불어 부적또래애착도 나타난다. 정적또래애착은 안정또래애착, 안전또래애착, 친밀또래애착 등을 포함한다. 부적또래애착에서는 불안또래애착, 회피또래애착, 양가또래애착, 의존또래애착을 포함한다(Ainsworth & Bowlby, 1991; Allen, McElhaney, Kuperminc, & Jodl, 2004). 따라서 또래애착의 연구에서는 정적또래애착과 부적또래애착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관계에서 정적또래애착을 형성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은, 2015), 학교에서도 또래에게서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학교생활을 좋아하게 되고 학습효과도 향상되며 정서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선, 2001). 또한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면

청소년들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반사회적 문제행동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aird, Pettit, Dodge, & Bates, 1999). 이와는 달리 부적또래애착을 형성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이 높고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송미옥, 2011). 또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숙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역기능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Mallinckrodt & Corcoran, 2000). 이들은 사회, 정서적 적응력이 부족하여 또래친구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각기 다르게 형성하는 정적또래애착과 부적또래애착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다른 형태의 적응유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과 정책들(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백해정, 방은령, 2009; 이춘화, 윤옥경, 2003)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형성하는 정적, 부적또래애착에 따라서 어떻게 청소년들의 삶이 달라지는가를 정리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Lazarus(1963)는 적응을 개인과 주변 환경 사이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행동과정으로 보았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적응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하거나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며 안정감을 가지는 마음 상태라고 보고 있다(박현진, 2017; 이화명, 김영미, 2016). Achenbach(1991)도 청소년

년 시기를 적응과 부적응의 혼합된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본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을 가지고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적적응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생활적응(김모선, 2018; 양다영, 2018; 이진주, 허세희, 2016), 삶의 만족(김문선, 2013; 조은혜, 2016), 자아존중감(백은라, 2018; 이하리, 차한솔, 2015), 공동체의식(송연주, 김대현, 2015; 전은경, 2016)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부적적응 관련 연구들은 내현화와 외현화 행동(박미경, 2012; 최은실, 정선아, 2012), 학교부적응(고종민, 명향란, 안권순, 2017; 김모선, 2018), 학업관련 스트레스(김아연, 2011; 조은혜, 2016), 중독(김영춘, 황고운, 2016; 이주리, 송지원, 2018), 불안(곽선주, 2011; 정예지, 2014)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틀 속에서 분석되고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변인들과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메타분석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과 관련한 채선화와 김진숙(2015)의 학교급별 연구가 유일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래애착, 부모애착, 교사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학교급별 효과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사애착, 부모애착, 또래애착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관련하여 정리한 다른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대상으로 정적적응과 부적적응과 같은 적응관련 변인들을 메타분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의 정적 또래애착과 관련한 정적적응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적응으로 나타났지만(강보람, 2017; 김영숙, 2017; 정재선, 2018) 정서조절, 안녕감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었다(장미희, 이지연, 2011; 하영명, 정소희, 2018).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은 인터넷 중독, 심리·사회적 부적응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었다(고종민 등, 2017; 김명화, 박영자, 2013; 신영미, 진미정, 2018; 황고운, 조예진, 현명호, 2016). 또한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연구들(김미진, 권경인, 2014; 유현욱, 홍혜영, 2015; 장소천, 2014)과 더불어 부적적응 관련 연구들(안은희, 2017; 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조진주, 박경, 2018)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또래애착의 종류도 정적또래애착과 부적또래애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Ainsworth & Bowlby, 1991; Armsden & Greenberg, 1987), 적응관련 변인들도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Lazarus, 1963; Lopez & Snyder, 2003; Snyder & Lopez, 2002, 2007). 하지만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을 전체적인 체계를 갖고 연구한 메타분석 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해서 메타분석의 방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적응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이고 교육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 학교급별, 개별적응 변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의 선정

문헌검색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9년간 국내에서 연구된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중복될 경우 학술논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은 대학도서관의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원문정보시스템(KISS), 국내학회지(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구글(Google) 등에서 이루어졌다.

논문선정과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검토하면서 두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의 결과 값이 제시된 논문들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실험연구에서는 Cohen의 d 값 또는 Hedges의 g 값을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효과크기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아닌 관계연구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논문을 살펴본 결과 석사학위논문 149편, 박사학위논문 12편, 학술논문 142편, 총 303편의 논문 원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관련 변인 부재연구 12편, 중복연구 3편을 제외하여 총 288편의 원문 가용 논문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패널자료 16편은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는 논문으로 한 시점 내에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논문에 남/여, 초기/중기 등으로 제시된 논문은 각각 하나의 논문으로 판단하여 29편의 논문이 증편되었다.

이렇게 하여 선정논문은 301편으로 석사학위논문 161편, 박사학위논문 12편, 학술논문 128편이 되었다. 이후에는 선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이상치 검토는 일반적으로 전체효과크기를 가지고 사분위수값을 구한 이후 3사분위수에서 1사분위수를 뺀 사분위수 범위 값을 구하여 1사분위수에서 $1.5 \times$ 사분위수 범위 값을 빼고, 3사분위수에서 $1.5 \times$ 사분위수 범위 값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김달호 외, 2008; 조은실, 김영숙, 조한익, 2014에서 재인용). 이를 적용하면 Fisher의 Z 값에 대한 이상치 범위(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논문 3편(김숙향, 김형모, 2018; 정선현, 이희영, 2012; 함혜경, 2013)을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5편의 논문에서 2,189

개의 하위변인의 효과크기를 구하였으며, Fisher의 Z 값에 대한 이상치 범위(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 $-.57 \sim .19$)를 벗어난 부적적응 관련 논문 6편(김기정, 2010, 남/여; 김현주, 2014; 문수정, 2016, 초/고; 정윤희, 이인수, 2012)을 제외한 198편의 1,214개의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은 이상치가 없었으며 16편의 논문에서 158개의 효과크기를 구하였고,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에서도 이상치가 없어 17편의 논문에서 116개의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157편, 박사학위논문 12편, 학술논문 124편으로 총 293편이다.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검토 단계에서 최종자료 선정단계에 이르는 전체과정은 그림 1과 같다.

2. 코딩절차

코딩방법

본 연구에서는 Lipsy와 Wilson(2001), Cooper(2010)의 메타분석 절차와 코딩방법을 참고하여 논문관련사항(논문제목, 저자명, 출처, 발표년도), 논문형태(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학술논문),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별적응 유형(부모, 동기, 사회, 안녕감, 성격, 정서, 학업관련) 등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였다.

3. 분석절차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이다.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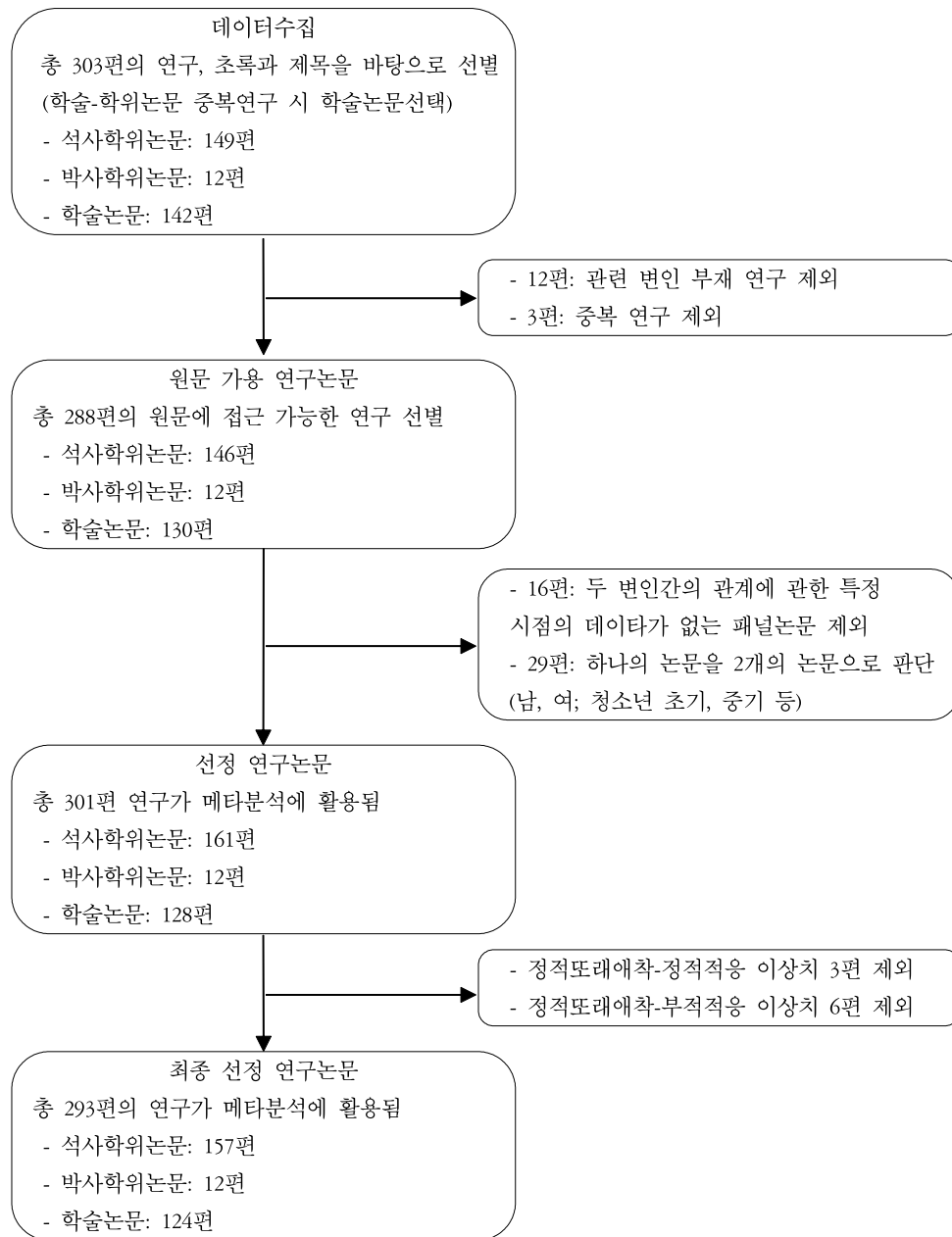


그림 1. 메타분석을 위한 논문선정과정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또래애착을 정적
또래애착과 부정적또래애착으로 구분하였다. 정
적또래애착은 안정또래애착, 안전또래애착, 친

밀또래애착을 포함하였고 부정적또래애착은 불
안또래애착, 회피또래애착, 양가또래애착, 분
리또래애착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기

준은 또래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른 것이다(Ainsworth & Bowlby, 1991; Armsden & Greenberg, 1987).

적응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거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긴 시간동안 관심있게 연구해 온 주제이다(Lazarus, 1976; Nevid & Rathus, 2013; Piaget & Inhelder, 196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충족해 나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적응과의 관계를 메타분석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도식은 그림 2와 같다.

적응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응과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면 심리적 적응, 긍정적 적응, 만족감, 심리적 기능, 안녕감, 심리적 부적응, 정신적인 고통, 불안, 우울, 분노, 기분, 대처 등 다양하다(Chang et al., 2007; Diener et al., 2010; Jatava, & Cerezo, 2014; Job, Dweck, & Walton, 2010; O'Donnell, Schwab-Stone, & Ruchkin, 2006; Ryff, 1989). 적응을 연구하는 학자들(Lent, 2004; Lent et al., 2005; Radley &

Green, 1987)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어들과 개념들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로 인해 이를 분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적응관련 변인들을 분류하고 유목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련 연구들(Lazarus, 1963; Lopez & Snyder, 2003; Snyder & Lopez, 2002, 2007)과 적응관련 메타분석 연구들(김미점, 조한익, 2015; 정장현, 조한익, 2017)을 살펴보았다. 이후 교육심리 박사과정 학생들,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심리 전문가 등이 모여서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연구된 적응관련 변인들을 모두 살펴보고 분류하고 유목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응관련 문헌들에 비추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변인들은 다시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변인들을 정리해 나갔다. 이러한 분류방법을 거쳐서 또래애착과 관련된 정적적응과 부적적응은 부모관련 영역, 동기관련 영역, 사회관련 영역, 안녕감관련 영역, 성격관련 영역, 정서관련 영역, 학업관련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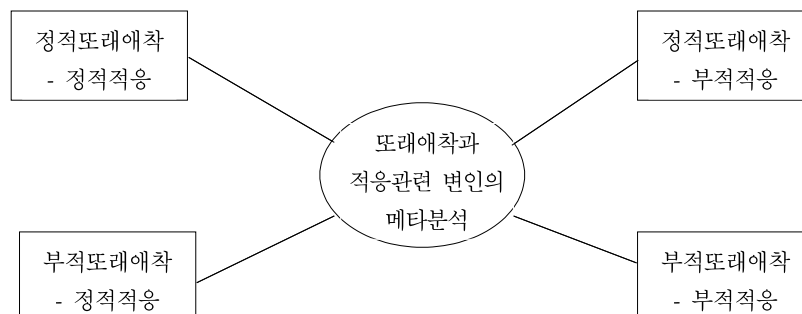


그림 2.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도식

표 1.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분류

정적또래애착 - 정적적응		정적또래애착 - 부적적응	
정적 또래애착 (안정, 안전, 친밀)	부모관련 영역: 부모애착, 부모양육 태도, 애정적양육태도 등 동기관련 영역: 희망, 자아(회복)탄 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 기통제력, 공감, 자기결정성 등 사회관련 영역: 학교생활적응, 공동 체의식, 교우관계, 또래관계, 사회 적 유능성 등 안녕감관련 영역: 정서·심리적인 영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성격관련 영역: 성격강점,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등 정서관련 영역: 정서인식명확성, 자 기조절능력, 정서조절력, 정서조절 양식, 분노표현방식, 정서표현성, 감사성향 등 학업관련 영역: 학업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등	정적 또래애착 (안정, 안전, 친밀)	부모관련 영역: 불안정애착, 애착외 상, 부모갈등, 부모학대, 방임, 모의 심리적 통제 등 동기관련 영역: 인터넷중독, 스트레 스대처방식(정서, 회피), 중독경향 성, 완벽주의 등 사회관련 영역: 문제행동, 비행, 사 회불안, 지위비행, 대인관계문제, 따돌림, 학교폭력, 갈등 등 안녕감관련 영역: 심리사회적 부적 응, 부정적 안녕감 등 성격관련 영역: 내현적자기애, 성격 강점, 신경성 등. 정서관련 영역: 분노, 거부민감성, 내·외현화문제행동, 자아손상, 낙 인효과, 우울, 부적응도식, 자살생 각, 소외감, 분노표현방식 등 학업관련 영역: 학업스트레스, 학업 지연행동 등
부적또래애착 - 정적적응		부적또래애착 - 부적적응	
부적 또래애착 (불안, 회피, 양가, 의존)	부모관련 영역: 부모애착, 부모양육 태도, 애정적양육태도 등 동기관련 영역: 희망, 자아(회복)탄 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 기통제력, 공감, 자기결정성 등 사회관련 영역: 학교생활적응, 공동 체의식, 교우관계, 또래관계, 사회 적 유능성 등 성격관련 영역: 성격강점,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등 정서관련 영역: 정서인식명확성, 자 기조절능력, 정서조절력, 정서조절 양식, 분노표현방식, 정서표현성, 감사성향 등	부적 또래애착 (불안, 회피, 양가, 의존)	부모관련 영역: 불안정애착, 애착외 상, 부모갈등, 부모학대, 방임, 모의 심리적 통제 등 동기관련 영역: 인터넷중독, 스트레 스대처방식(정서, 회피), 중독경향 성, 완벽주의 등 성격관련 영역: 내현적자기애, 부적 성격, 신경성 등 정서관련 영역: 분노, 거부민감성, 내·외현화문제행동, 자아손상, 낙 인효과, 우울, 부적응도식, 자살생 각, 소외감, 분노표현방식 등

의 구체적인 분류는 표 1과 같다.

조절변인 선정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절변인을 설정하였다.

첫째, 논문형태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따라서 또래애착과 적응의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구분하는 이유로 학위논문은 미출판논문, 학술논문은 출판논문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한 영역의 연구만을 연구하게 되면 출판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은실, 김영숙, 조한익, 2014; Cooper, 2010). 출판편의는 논문을 전체적으로 표집하지 못해 연구물들이 좌우대칭이 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된다(Borenstein et al., 2009).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에 따라서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포함하였는데 이 시기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강봉규, 2016; 최경숙, 송하나, 2010). 따라서 학교급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효과크기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부모관련 영역, 동기관련 영역, 사회관련 영역, 안녕감 관련 영역, 성격관련 영역, 정서관련 영역, 학업관련 영역 등 적응관련 영역에 따라서 효과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절변인으

로 설정하였다. 이는 김미점과 조한익(2015)의 희망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적응유형별로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정장현과 조한익(2017)의 연구에서도 정적적응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에 따라 효과크기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적응관련 변인들의 유형들에 따라서 효과크기가 달라지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자료의 입력과 의존성: 분석단위 이동

본 연구에서는 전체 효과크기와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다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Cooper, 2010). 전체 효과크기 분석에서는 연구단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한 연구에서 여러 개의 효과크기가 나타날 때 분석단위로 분석하게 되면 효과크기 간에 상호의존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분석단위를 하나의 효과크기로 통합하여 분석한 것이다(Cooper, 2010; Lipy & Wilson, 2001). 또한 29편의 단일 연구에서 두 개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문수정, 2016; 오정숙, 2017; 이미현, 2014; 홍수민, 2016) 각각의 효과크기는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Borenstein et al., 2009). 하지만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위가 아닌 분석단위로 이동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93편의 연구에서 입력된 3,679개의 효과크기를 분석단위로 이동하였다.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는 244편의 연구를,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2,165개를 분석하였다. 정적또래애착-부적적응에서도 전체 효과

크기는 198편의 연구를,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1,214개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부적또래애착-정적적응에서도 전체 효과크기는 16편의 연구를,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158개를 분석하였다. 부적또래애착-부적적응에서도 전체 효과크기는 17편의 연구를,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116개를 분석하였다.

출판편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법으로 그림 3과 같이 효과크기 분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왼쪽에 삽입된 효과크기들이 나타났으며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오른쪽에 삽입된 효과크기들이 나타나 출판편의의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그 중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에서는 출판편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에서는 출판편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좌우대칭이 되지 않는 효과크기 값을 트리밍(trimming)하여 좌우대칭을 만들게 되면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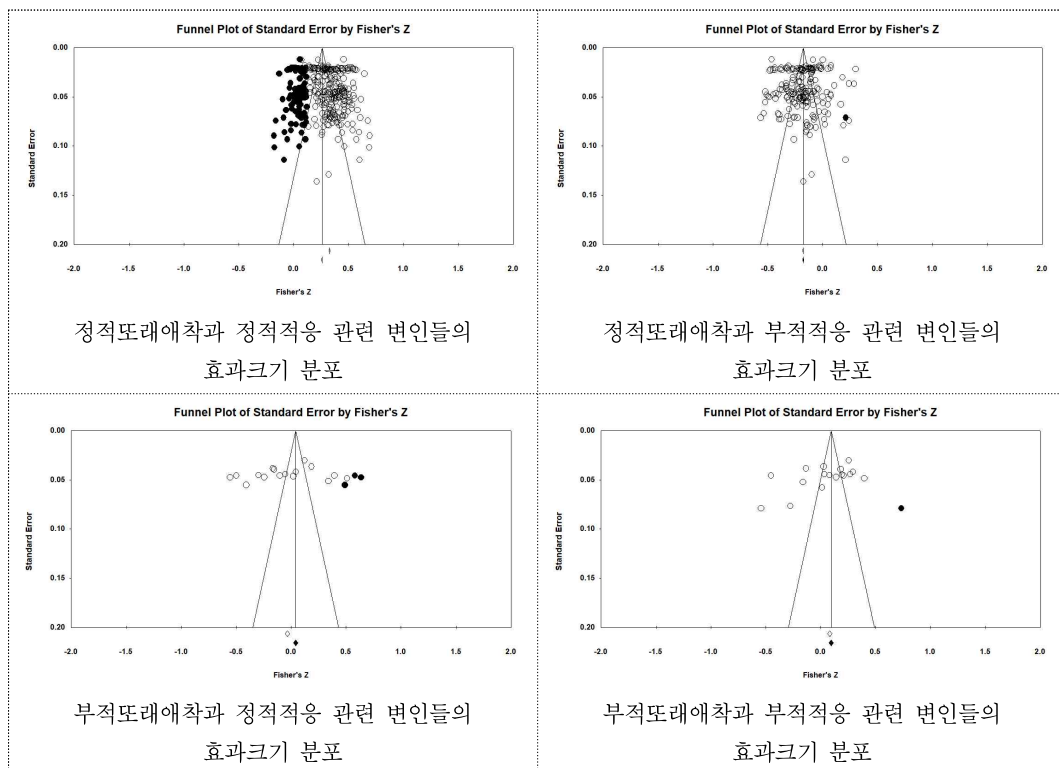


그림 3. Trim and Fill 분석에 의한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분포

연구들을 삭제하게 되어 연구 수가 적어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런 방법보다는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크기 값들을 삽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함으로써 출판 편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상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Fisher의 Z계수로 변환하고 Fisher의 Z계수를 통해 산출된 효과크기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다시 Pearson의 상관계수로 변환하여 살펴보았다. 상관자료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Fisher의 Z계수로 분석하였고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Fisher의 Z는 상관계수로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2)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는 표 2와 같다.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Q = 3888.50, p < .01$). 따라서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35(95\% \text{ CI} = .33 \sim .37)$ 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판편의를 고려하여 무선효과모형에서 삽입된 효과크기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26$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칭을 이루는 논문들을 더 찾을 경우 원래의 효과크기인 $.35$ 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 또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Q = 5425.41, p < .01$). 따라서 무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17(95\% \text{ CI} = -.20 \sim -.15)$ 로 나타났다. 이는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한 효과크기와 동일한

표 2.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

변인	K	이질성 (Q)	Random ES			
			-95% CI	ES(r)	95% CI	Imputed ES(r)
정적또래애착-정적적응	244	3888.50**	.33	.35(.33)	.37	.26(.26)
정적또래애착-부적적응	198	5425.41**	-.20	-.17(-.18)	-.15	-.17(-.17)
부적또래애착-정적적응	16	680.86**	-.25	-.19(-.15)	-.14	-.14(.14)
부적또래애착-부적적응	17	421.37**	-.07	.03(.03)	.14	.07(.07)

** $p < .01$.

효과크기임을 알 수 있다. 부정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Q = 680.86, p < .01$). 따라서 무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19$ ($CI = -.25 \sim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14$ 로 원래의 효과크기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 또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Q = 421.37, p < .01$). 따라서 무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03$ ($95\% CI = -.07 \sim .1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07$ 로 나타나 원래의 효과크기 $.03$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조절변인에 따른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이질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에 따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초, 중, 고등학교별로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변인에 따른 정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분석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 등의 조절변인에 따른 정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표 3과 같다.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7.31, p < .05$). 효과크기는 석사학위논문($ES = .34$), 학술논문($ES = .32$), 박사학위논문($ES = .31$) 순으로 나타났다.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의 효과크기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198.01, p < .01$). 효과크기는 초등학교($ES = .39$), 고등학교($ES = .34$), 중학교($ES = .28$)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응유형에 따라서는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150.46, p < .01$). 효과크기는 성격관련 영역($ES = .43$), 안녕감관련 영역($ES = .42$), 정서관련 영역($ES = .41$), 동기관련 영역($ES = .34$), 사회관련 영역($ES = .31$), 부모관련 영역($ES = .31$), 학업관련 영역($ES = .23$) 순으로 나타났다.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45, p > .05$). 학교급에 따라서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_b = 14.28, p < .01$) 효과크기는 초등학교($ES = -.20$)가 가장 높고 중학교($ES = -.15$), 고등학교($ES = -.1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별적응유형에 따라서는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164.08, p < .01$). 효과크기는 안녕감관련 영역($ES = -.36$), 정서관련 영역($ES = -.24$),

표 3. 조절변인에 따른 정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조절 변인	하위범주	정적또래애착-정적적응			정적또래애착-부적적응		
		K	ES(r)	Q _b	K	ES(r)	Q _b
논문 형태	석사학위논문	1344	.34(.32)		712	-.16(-.16)	
	박사학위논문	105	.31(.30)	7.31*	119	-.17(-.17)	.45
	학술논문	716	.32(.31)		383	-.16(-.16)	
학교급	초등학교	805	.39(.37)		254	-.20(-.20)	
	중학교	947	.28(.28)	198.01**	651	-.15(-.15)	14.28**
	고등학교	252	.34(.33)		106	-.15(-.15)	
적응 유형	부모관련 영역	744	.31(.30)		268	-.14(-.13)	
	동기관련 영역	482	.34(.33)		267	-.11(-.11)	
	사회관련 영역	604	.31(.30)		268	-.13(-.13)	
	안녕감관련 영역	148	.42(.39)	150.46**	2	-.36(-.35)	164.08**
	성격관련 영역	34	.43(.40)		8	-.11(-.11)	
	정서관련 영역	92	.41(.38)		365	-.24(-.24)	
	학업관련 영역	61	.23(.23)		36	-.14(-.14)	

* $p < .05$. ** $p < .01$.

학업관련 영역($ES = -.14$), 부모관련 영역($ES = -.14$), 사회관련 영역($ES = -.13$), 동기관련 영역($ES = -.11$), 성격관련 영역($ES = -.11$) 순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에 따른 부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분석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 등의 조절변인에 따른 부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표 4와 같다.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28.90$,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사학위논문($ES = -.27$), 학술논문($ES = .01$), 박사학위논문($ES = .16$) 순으로 나

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도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26.00$, $p < .01$). 효과크기는 중학교($ES = -.07$), 고등학교($ES = -.07$), 초등학교($ES = .22$)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응유형에 따라서도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44.85$, $p < .01$). 효과크기는 동기관련 영역($ES = -.30$), 성격관련 영역($ES = -.21$), 정서관련 영역($ES = -.01$), 부모관련 영역과 사회관련 영역($ES = .06$)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Q_b = 5.18$, $p > .05$), 적응유형($Q_b = .97$, $p > .05$)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 =$

표 4. 조절변인에 따른 부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조절 변인	하위범주	부적또래애착-정적적응			부적또래애착-부적적응		
		K	ES(r)	Q _b	K	ES(r)	Q _b
논문 형태	석사학위논문	33	-.27(-.26)		77	.15(.15)	
	박사학위논문	44	.16(.16)	28.90**	16	.08(.08)	5.18
	학술논문	81	.01(.01)		23	-.01(-.01)	
학교급	초등학교	31	.22(.22)		7	-.43(-.40)	
	중학교	59	-.07(-.07)	26.00**	60	.10(.10)	140.29**
	고등학교	40	-.07(-.07)		43	.18(.18)	
적응 유형	부모관련 영역	50	.06(.06)		44	.13(.13)	
	동기관련 영역	20	-.30(-.29)				
	사회관련 영역	70	.06(.06)	44.85**	34	.10(.10)	.97
	성격관련 영역	9	-.21(-.21)		15	.13(.13)	
	정서관련 영역	9	-.01(-.01)		23	.06(.06)	

** $p < .01$.

140.29, $p < .01$). 효과크기는 초등학교($ES = -.43$), 중학교($ES = .10$), 고등학교($ES = .18$)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논문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논문들로 최종 석사학위논문 157편, 박사학위논문 12편, 학술논문 124편으로 총 293편의 논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전체 효과크기는 중

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올바른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정적또래애착이 정적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관련된다(김혜금, 조혜영, 2016; 이하리, 이영선, 2015; 정혜원, 조옥귀, 2011).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 크기는 부적으로 낮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이 관련되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관련된다(신선미, 이소연, 2017; 정희원, 2015). 그동안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관심을 갖고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정적또래애착이 높으면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

가 높아지며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낮아짐을 메타분석에서 나타난 논문편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적응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은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불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적응이 낮아진다고 밝힌 연구들과 관련된다(유현옥, 홍혜영, 2015; 장소천, 2014).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질적인 집단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은 조절효과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적또래애착이 높으면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높아지지만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또래애착에서 부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이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논문편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적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 등의 조절변인들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은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순으로 효과크기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출판 논문인 학위논문의 효과크기가 학술논문의 효과크기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된다(Cooper, 2010). 학교급에 따라서는 효과크기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사춘기 이전 시기로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정적적응이 높아지지만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급풍토와 환경에서 큰 변화를 겪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효과크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차츰 성숙해지고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므로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높아진다고 본다(최경숙, 송하나, 2010; Ryan & Deci, 2017; Shaffer & Kipp, 2010).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효과크기가 낮게 나타났다는 채선화와 김진숙(2015)의 메타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채선화와 김진숙(2015)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만을 보았지만 본 연구는 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로 확장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개별적응 유형에 따라서는 성격관련 영역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는데 이는 정적 또래관계는 성격강점 덕목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와 관련된다(안계현, 2016; Miserandino, 2012).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기 또래애착에서도 긍정적 성격은 정적적응에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녕감 관련 영역도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으로 또래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들과 관련된다(신형자, 2010; 장휘숙, 1997; Armsden & Greenberg, 1987). 정서관련 영역도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신뢰를 가진 애착관계는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또래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대치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관련된다(장미희, 이지연, 2011; Seligman, Park, & Peterson, 2004). 정적또래애착과 관련하여 동기관련 영역, 사회관련 영역의 효과크기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동기, 사회성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관련된다(김미진, 권경인, 2014; 문은식, 2015; 송병국, 최창욱, 2017; 유미너, 2013). 부모관련 영역도 정적또래애착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청소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 인지, 사회성, 신체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본다(조용주, 최홍일, 2015). Gorrese와 Ruggieri(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정적또래애착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간에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크기는 .30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효과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모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학업관련 영역은 정적인 낮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높았고, 또래로부터 지각하는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은, 조미형,

2007; 정예지, 2014).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의 조절변인들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 간에는 같은 패턴의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학교급별 효과크기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정적또래애착이 중·고등학생들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본다(Bowlby, 1969; Shaffer & Kipp, 2010). 적응유형별로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안녕감의 효과크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부적 안녕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임양미, 2014; 정익중, 2008). 정적또래애착은 정서관련 적응과의 부적 효과크기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정서들을 낮게 지각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마한나, 2017; 한상철, 2012). 정적또래애착과 학업관련 부적적응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부나 성적에 대한 걱정, 시험 등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이 낮아진 심리적 상태를 뜻하거나, 학습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괴로움 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강귀애, 2014; 배현민, 배천웅, 2018). 정적또래애착과 부모관련 부적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애착에서 많은 만족을 얻을수록 부모관련 통제나 부정적인 애착에서 서서히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으로 본다(김금자, 2009; 임선아, 2013). 정적또래애착과 사회관련 적응도 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나 비행 등의 사회적 부적응이 낮아짐을 의미한다(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10).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 동기관련 영역도 낮아지는데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애착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마트폰 중독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선희, 백진아, 2018). 정적또래애착은 부적 성격관련 영역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신경증 등의 부정적인 성격이 낮아짐을 의미한다(Costa & McCrae, 1992; Miserandino, 2012).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순으로 효과크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에서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중·고등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으면서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하여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정적적응이 낮아지는데 초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적또래애착이 높더라도 부모와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돌보기 때문으로 본다(강봉규, 2016;

최경숙, 송하나, 2010; Shaffer & Kipp, 2010). 적응유형에 따라서도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동기와 성격관련 영역의 효과크기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고립과 소외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이 높아지고 신경증적이고 불안정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Armon, Shirom, & Melamed, 2012; Miserandino, 2012). 하지만 부적또래애착과 관련하여 부모관련 영역, 사회관련 영역, 정서관련영역은 효과크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부적또래애착은 부모관련 적응, 사회관련 적응, 정서관련 적응과는 별개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적또래애착은 자신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다고 지각하는 것이지만 이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실제 다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서도 학업 등으로 인해서 따로 지낼 수 있다. 이는 부모관련 적응, 사회관련 적응, 정서관련 적응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부적또래애착과 부모관련, 사회관련, 정서관련 적응은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김미점, 조한익, 2015; 최경숙, 송하나, 2010). 하지만 청소년들의 부적또래애착과 관련한 정적적응의 관련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 학교급별, 적응유형 등의 조절변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적또래애착과 부적

적응의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학교급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적응은 낮게 나타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학교에서 보살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래애착이 부적으로 형성되더라도 부적인 적응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적응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박성미, 2013; 최경숙, 송하나, 2010; Shaffer & Kipp, 2010).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을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으로 나누어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효과크기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정적적응이 높으며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적응이 낮아지고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정적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동안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정적또래애착과 정적적응, 정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며 신뢰로운 메타분석의 결과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적또래애착과 정적

적응,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관련 연구는 최근 9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크기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는 정적인 또래애착은 긍정적인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고 부적인 적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또래애착과 부적적응의 효과크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들은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들은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부적애착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본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적또래애착을 느끼더라도 가정과 학교가 보호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의 지도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적또래애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지도와 보살핌을 받으면 정적적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응의 측면에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정적적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또래관계기술 등을 가르치며 타인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가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적응유형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안녕감, 성격, 정서영역의 적응이 높아지며 부적응적 적응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동기관련영역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정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지만 부적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또래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복감, 노력 의지 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또래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이 왜 그렇게 많았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또래관계를 왜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는 학업, 성격, 불안, 우울, 비행 등 많은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안정을 살피고 또래관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에서 중심적인 일은 가르치는 일이고 학생은 배우는 일이었으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적응적인 삶을 지향하고 부적응적인 삶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보살핌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거시적인 영역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급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교육적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9년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치원, 대학생, 성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논문에서 남자, 여자와 같이 구분된 논문은 각각의 논문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논문에서 나온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층분석을 통해서 분석단위를 고려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적 제안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문화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외국의 연구들과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귀애 (2014). 부모 자녀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및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보람 (201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기결정성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봉규 (2016).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 강지은 (2015).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또래애착과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 강남대학

- 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종민, 명향란, 안권순 (2017).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기술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91-514.
- 곽선주 (20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고교생의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자아분화의 매개 역할.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자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 (2010).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화, 박영자 (2013). 부모 및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상담*, 3(1), 33-59.
- 김모선 (2018). 초등학생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선 (2013).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 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 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점, 조한익 (2015). 희망과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9(2), 331-360.
- 김미진, 권경인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2(2), 1-23.
- 김선희, 백진아 (2018).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477-487.
- 김숙향, 김형모 (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264-651.
- 김승진 (2015).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이성관계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연 (2011). 아동의 사교육 경험, 자아탄력성 및 부모·또래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춘, 황고운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3), 145-157.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연구보고 13-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주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금, 조혜영 (2016).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 19-36.
- 마한나 (2017).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 감사성향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정 (2016).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비교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박미경 (2012). 중학생의 또래 애착과 자기 통제력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미 (2013). 초기 청소년 남녀 학생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 (2017).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과 또래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현민, 배천웅 (2018). 고등학교 신입생의 또래애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1), 79-93.
- 백은라 (2018).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미옥 (2011).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병국, 최창욱 (2017).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자아인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7), 303-331.
- 송연주, 김대현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공동체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신선미, 이소연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1), 49-64.
- 신영미, 진미정 (2018).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용도별 휴대전화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3), 1-14.
- 신형자 (2010). 아동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계현 (2016).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성격강점덕목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희 (2017).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다영 (2018).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 오정숙 (2017).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자녀의 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녀 (2013).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욱, 홍혜영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77-999.
- 유명숙, 조혜정, 이현희 (2010).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131-156.
- 이미현 (2014).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87-112.
- 이영화, 임정하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동적 사고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4), 35-48.
- 이전주, 허세희 (2016).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인식의 구조적 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 이주리, 송지원 (2018).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45-57.
- 이춘화, 윤옥경 (2003). 여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연구보고 03-R4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하리, 이영선 (2015). 청소년의 교사·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2), 467-486.
- 이하리, 차한솔 (2015). 청소년의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선 (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명, 김영미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9), 127-153.
- 임선아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존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26(1), 121-138.
- 임양미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또래애착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23(3), 379-393.
- 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포커싱적 태도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 년학연구, 22(10), 261-287.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장소천 (2014). 중학생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관계: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전은경 (2016). 초등학교의 정서지능, 또래애착 및 학급 공동체의식의 구조적 관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현, 이희영 (2012).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4(6), 793-805.
- 정예지 (2014). 자기조절학습,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희, 이인수 (2012).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분리-개별화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225-248.
- 정익중 (2008). 아동 학대경험이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장현, 조한익 (2017).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인간발달연구*, 24(1), 105-137.
- 정재선 (2018). 교사애착이 일반고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삶의 목표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4), 475-492.
- 정혜원, 조옥귀 (2011). 초등학교의 가족건강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몰입경험과 또래애착의 역할. *교육이론과 실천*, 21, 65-85.
- 정희원 (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애착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주, 최홍일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의 간접효과. *학교사회복지*, 30, 47-70.
- 조은실, 김영숙, 조한익 (2014). 유아의 읽기 프로그램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8(4), 619-649.
- 조은혜 (2016).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내·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교사-학생 관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주, 박 경 (2018).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211-236.
- 조현영 (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 또래 애착의 매개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선화, 김진숙 (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339-358.
- 천수혜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 송하나 (2010). 발달심리학 전 생애: 아

- 동·청소년·성인. 서울: 교문사.
- 최은실, 정선아 (2012). 초등학교의 애착,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 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43-464.
- 하영명, 정소희 (2018).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부모양육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525-538.
- 한상철 (2012). 청소년심리학. 파주: 교육과학사.
- 함해경 (2013).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5(1), 57-85.
- 홍수민 (2016).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청소년 정서문제 및 성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비행언어 사용경험 유무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고운, 조예진, 현명호 (2016). 초등학교의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19-239.
- Achenbach, T.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nsworth, M. S., & Bowlby, J. (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4), 333-341.
- Allen, J. P., McElhaney, K. B., Kuperminc, G. P., & Jodl, K. M. (2004).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security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6), 1792-1805.
- Armon, G., Shirom, A., & Melamed, S. (2012).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s predictors of changes across time in burnout and its facets. *Journal of Personality*, 80(2), 403-42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orenstein, M., Hedges, L., Higgins, J., & Rothstein, H. K.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Chichester, UK: Wiley.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hang, E. C., Sanna, L. J., Riley, M. M., Thornburg, A. M., Zumberg, K. M., & Edwards, M. C. (2007). Relation between problem solving styl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young adults: Is stress a mediating varia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35-144.
- Cooper, H. (2010).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W., Oishi, S., & Biswas-Diener, 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143-156.
- Gorrese, A., & Ruggieri, R. (2012). Peer

-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5), 650-672.
- Jativa, R., & Cerezo, M. A. (2014). The mediating role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38(7), 1180-1190.
- Job, V., Dweck, C. S., & Walton, G. M. (2010). Ego depletion-Is it all in your head? Implicit theories about willpower affect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21(11), 1686-1693.
- Laird, R. D.,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1999). Best friendships, group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4), 413-437.
- Lazarus, A. A. (1963). The results of behavior therapy in 126 cases of severe neurosis. *Behavior Research & Therapy*, 1(1), 65-78.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 Lent, R. W. (2004).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82-509.
- Lent, R. W., Singley, D., Sheu, H. B., Gainor, K. A., Brenner, B. R., Treistman, D., & Ades, L.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domain and life satisfaction: Exploring the theoretical precursor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9-442.
- Lipsy, M. W., & Wilson, D. B. (2001).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Lopez, S. J.,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APA.
- Mallinckrodt, B., & Corcoran, K. O. (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4), 473-483.
- Miserandino, M. (2012). *Personality psychology: Foundations and findings*. New Jersey: Pearson.
- Nevid, J., & Rathus, S. (2013). *Psychology and the challenges of life: Adjustment and growth*. Hoboken, NJ: Wiley.
- O'Donnell, D. A., Schwab-Stone, M. E., & Ruchkin, V. (2006). The mediating role of alienation in the development of maladjustment in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1), 215-232.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Radley, A. & Green, R. (1987). Illness as adjustment: A methodology and conceptual framework.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9(2), 179-207.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New York: Guilford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ligman, M. E. P., Park, N., & Peterson, C.

-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A closer look at hope and modes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28-634.
- Shaffer, D. R., & Kipp, K. (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Belmont, CA: Wadsworth.
- Snyder, C. J., & Lopez, S. J. (2007).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 London: Sage.
- Snyder, C. R., & Lopez, S. J.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9.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9. 09. 03.
최종게재결정 : 2019. 09. 18.

Meta-analysis of Peer Attachment and Adjustment-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Jung, Jang Hyun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duct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adjustment-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This study covers masters'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s published in Korea for the past nine years from 2010 to 2018. The final study consisted of 293 papers, made up of 157 master's theses, 12 doctoral dissertations, and 124 journals. The coding of data classified the data by study type, school level, and individual adjustment type with criteria suggested by Lipsy and Wilson (2001), and by Cooper (2010). The effect size was calculated by Fisher's Z score and was converted to a correlation for ease of interpretation. The overall effect size and effect sizes by moderator variables were all analyzed in terms of the random effect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peer attachment and positive adjustment had medium effect size, whereas positive peer attachment and negative adjustment, negative peer attachment and positive adjustment, and negative peer attachment and negative adjustment had small effect siz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agnitudes of the effects by study type, school level, and adjustment typ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 sizes of positive peer attachment and positive adjustment, positive peer attachment and negative adjustment, and negative peer attachment and positive adjustment. However, there were on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 sizes of negative peer attachment and negative adjustment according to school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 the relevance with prior study, present an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nd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s.

Keywords: peer attachment, adjustment related variables, meta analysis